

Vol.48 2010. 8

# KIER

## Friday energy letter

### 국내 태양광산업의 현황 및 단기 전망

## Friday Energy Letter

### 국내 태양광산업의 현황 및 단기 전망

2010. 8. 13

\* 출처 : 에너지경제신문, 8.11

#### □ 개요

- 현재 국내 폴리실리콘이나 잉곳, 웨이퍼, 그리고 태양전지 등 태양광 부품 소재 산업은 유럽 및 미주 시장 활기로 부흥기
- 올 국내 상반기 태양광 산업 수출은 지난해 8.8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105%가량 향상. 수주로 보면 2009년 상반기 8.7억 달러에서 16.5억 달러로 90% 증가

#### □ 업계 현황 및 전망

- 내년도 태양전지 국내 시장은 50%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 주력해 온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판매 전략을 강화
- 해외 시장도 다변화 추세인 데다 수요는 급등하고 있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 중
- 태양전지 시장의 성격 자체가 이미 '규모의 경제'를 이루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되면서 규모 증설에 초점
- 태양전지 제조업체 대부분 주력 시장은 해외 시장으로 기존 독일, 이탈리아, 스페인, 미국, 일본에 몰려 있던 해외 시장이 이제는 중국, 대만, 인도, 체코, 헝가리, 루마니아, 터키 등 다변화 추세

#### 1) STX 솔라

- STX솔라의 경우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비중은 반반으로. 생산 능력은 총 50MW. 이 중 30MW가량이 해외 수요가 차지
- 지난해 11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생산하는 대로 국내에는 다 팔기 시작했고, 올해 초부터는 일본 등으로 25MW가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유럽과 중국이나 대만 등지도 올 4월~5월경부터 판매 시작
- 지난해 시장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으나 해외 시장 활성화 덕분으로 올 들어 호전
- 지금 해외 시장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으로 생산이 100% 가동 중이며 수요가 몰리고 있어 폴리실리콘 등의 원자재 부족 현상 발생
- 태양 전지 해외 시장은 다변화 추세로 유럽에 주력하던 업체들도 중국, 중동 지역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고 있거나 서둘러 수직계열화를 준비 중
- STX솔라도 최근 3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통해 내년에는 180MW로 설비를 증설하고 인력 충원 등 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(R&D) 부문 투자 가속

#### 2) 미리넷 솔라

- 미리넷솔라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주력 시장으로 이탈리아가 조금 우세
- 독일은 하반기에 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올해 수주 물량 30~35% 정도가 유럽. 이 중 이탈리아가 20%를 차지

- 미리넷솔라 생산능력은 1기 라인과 2기 라인 모두 합쳐 100MW 규모. 올 4분기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100MW 3기 라인까지하면 총 200MW. 내년 초부터는 4기라인까지 총 300MW 규모로 양산된다 수요로 보면 500MW까지 확장 필요
- 이 때문에 지난 5월 2013년까지 1GW 규모로 태양 전지 생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.
- 요즘 중국 쪽 수요도 조금씩 생기고 있으며 이는 중국산이 저가 저품질이라는 인식을 탈피하려는 전략 차원에서 핵심 부품을 한국산으로 쓰려는 의도에서 발생
- 미리넷솔라가 파악하는 국내에서 유망한 태양광 발전 플랜트 방향은 BIPV
  - 지리적 여건 상 기존 건축물에 부착하는 식으로 발전하는 게 용이
  - 한국은 조금 특수한 시장이다 보니 건물 에너지를 줄이고 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틈새 시장으로 발전이 예견

### 3) LG전자

- 현재 LG전자의 경우 박막형은 연구 단계로 양산은 주문자 생산방식(OEM)으로 진행 중이지만 시장 규모가 매우 작고 아직 출하된 물량은 없음
  - 결정질은 120MW 규모로 생산 중이며 LG전자에 따르면 주문 요청이 쇄도하고 물량이 없는 상태
  - 후발주자이다 보니 여러 면에서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으나 브랜드 파워 덕분에 주문은 증가 추세
- 국내 수요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한 두개 업체에 편중된 여타 중견기업과 달리 LG전자의 수요는 다양화
  -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75%로 국내 발전 시장이며 그린홈 시장과 공공분야, 지방 보급 등이 그 다음
  - 세분화된 시장에 골고루 공급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
  - 하반기 그린홈 분야는 마무리됐고 공공 부문도 하반기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RPS 시범사업만이 시장에서 확대 변수로 남아 있는 실정
  - 해외 시장의 물량 규모가 매우 크고 빠른 성장세가 예견되므로 연말까지 240MW 증설을 목표
  - 향후 3년 내 생산 능력을 1GW급으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고 매출 3조원 달성을 목표

### 4) 삼성전자

- 현재 R&D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도 LG전자와 유사한 상황
  - 기흥에 지난해 9월부터 30MW급 R&D 라인을 가동 중으로 연내 100MW 규모로 증설하고 양산에 돌입할 계획
  - 내년 상반기까지 130MW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2015년까지 태양 전지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2020년까지 총 6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
  - 삼성전자가 맞닥뜨린 시장 상황은 없지만 박막형은 개발 중으로 향후에는 양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기는 미정
  - 내년까지도 현재로서는 아직 시장조사 단계로, LG처럼 실제 물건을 파는 단계가 아니라 R&D에서 파일럿 양산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계약이 진행 중인 건은 없음

